전법 일기

사찰 찾는 모든 이들 저마다 불성 꽃피우길

템플스테이는 20년 이상 외국인들에게 전통 불교를 쉽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다양한 외국인 방문객들과 만남을 통해 사람의 본질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성애도, 이성애도, 기쁨도, 고통도…. 그래서 '세계일화'라고 하셨나 보다. 모습은 다르지만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의 불성이 언젠가는 꽃피우길 항상 기도한다.

그날도 사찰 일주문을 들어서며 불보살님 전에 발원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행과 말이 모두 부처님의 행이고 말씀이게 하시고,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후 2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맞기 위해 안내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참가자 중 눈에 띄는 젊은 영국 여성 2명과 그리스인 50대 여성이 있었다. 영국 여성 두 명이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프로그램 시작이 늦어졌는데도 그리스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늦게 온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그 모습에서 자비심이 보였다. 사찰 예절을 설명하니 참가자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이내 진지해졌다.

그날도 그랬다. 사찰 안내를 위해 일주문 앞으로 가서 "일주문은 속세에서 부처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으로 '일주'라는 말에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일주문을 들어갈 때는 항상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로 삼배하고 들어간다" 등을 설명했다. 이내 20대의 젊은 비불자 서양인들이 삼배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도 불성의 씨앗이 싹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당에 들어가 삼배하는 법을 알려 주어도 이들은 마치 스펀지에 물 스미듯 그대로 잘 따라 했다. 연꽃 등(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통의 바다에 사는 우리도 올바른 삶과 수행을 통해 불성을 깨달아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내 설명을 들으며, 이들은 자신들만의 예쁜 연꽃 등을 완성했다.

이어 스님과의 차담 명상 시간이 되자, 조용히 들어오신 스님께서 우려낸 황차를 내어 주시며 명상에 대한 법담을 해 주시고, 명상 체험도 이끌어 주셨다. 보통 차담 시간 동안 외국인들이 스님께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스님이 되기 위해 얼마나 공부하는지', '출가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 절에는 스님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등이다.

물론 이와 비슷한 질문도 나왔지만, 참가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물었다. "여성도 성불할 수 있나요?" 스님께서는 부처님 당시 여성 출가 금지 이야기에서 시작해 깨달음의 마음에는 차별이 없으므로 여성도 당연히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차담을 마무리하셨다. 이날 참가자들의 밝고 환한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들이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내 환희심이 가슴 가득 차오르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그날따라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조진화 국제포교사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⑱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 대하여

해답 아닌 질문에 집중하라

종교의 가르침도 대중의 구미에 맞게 쉽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따르기 전에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진리에 대한 검증이 다수결의 문제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참된 이치인 진리의 속성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야 하는 것인가? 재미를 추구하는 마음의 바탕은 자극을 원하는 번뇌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심법에 속하는 번뇌는 색법의 몸에서는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 전래의 유가행파 수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진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은 이 딜레마에 직면해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끝이 없는 위대한 경전의 뜻을 배우고 (從無央數大經義)
그 남아 있은 감로(甘露)를 얻어 나는 마시니 (我得其餘服甘露)
병든 사람이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이 비유하겠네. (譬如人病服良藥) T15, 200c21-22

'천이품(天耳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세존(世尊)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살피라는 것이다. 참된 뜻을 듣는 귀가 열려야 종교적 가르침이 완성된다. 천이를 통해 언지(言志)를 획득해야 한다. 참되고자 하는 심성을 바탕으로 절실하게 경전에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쉽지도 재미있지도 않으나, 종교적 가르침은 매 순간 자신을 경책하는 양약으로 작용해야 한다.

대승 가르침 감로처럼 여기려면
무엇보다 진리에 눈감지 말아야
재미 묻기 전 참회 마음 살펴야

대승의 가르침을 감로처럼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 진리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 맹목(盲目)은 무명(無明)의 동의어이기에 앞서, 면목 없음이라는 근본적 실격을 이야기한다.

감로의 맛을 감별하려거든 건강한 혀의 감각이 필요한 까닭이다. 애써 꿀이 묻어 있는 칼날을 핥으려 할 일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법당을 드나들 때 가르침이 재미있는지를 묻기 전, 참회의 마음을 지녔는지 살펴야 한다. 경전이 쉬운가를 묻기 전, 보리심을 일으키고자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당연한 사안을 짚어 본 것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우리 시대의 정체성 문제다. 인류사 전체와 견주어 볼 때 오늘날 우리 시대는 특유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 문제는 바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로부터 배워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전해 줄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들의 경험은 오히려 장애물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종과 민족 간의 첨예한 대립, 살인을 목표로 하는 무기 산업의 발달과 파생금융자본주의의 등장, 학습의 결과로 축적되는 지식이 아닌 인공지능의 활용도에 따른 정보, 첨단의 과학 기술과 생명 공학,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 등으로 야기된 문명 전환의 문제는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질학적 시간을 도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존의 해법이 작용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이다. 이 트랜스휴머니즘 시대, 우리는 이 격변의 과도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감로의 양약이 계속 유효하려면, 어떤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 아니면 현 상태에서 고전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부터는 해답이 아니라 질문에 의미가 있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

7월 14일 영국 런던 소재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로 재해석한 디지털 융합 플랫폼 'K-아트 랩'을 오픈하고 첫 기획전 '타임 스페이스'를 선보였다.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을 실감형 콘텐츠로 재해석한 시리즈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다. 현장에서는 석굴암, 반가사유상, 감은사 사리장엄구 등을 원형으로 한 VR 콘텐츠들이 영국인들에게 선보였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15일 이상래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국가유산교육을 제도화한 건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유산교육 운영학교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두 가지 사례를 예를 든 이유는 최근 문화유산 관련 트렌드가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다. 최근 국립박물관 전시에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배리어 프리(무장애) 콘텐츠 등이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굿즈 브랜드 '뮷즈'는 MZ세대라면 한번쯤은 구매하는 상품이 됐다. 이뿐인가. 유무형의 불교문화유산들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들도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대 문화강국 실현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K-컬처 확장성과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 이상 문화유산 원형의 보유와 보존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산업화시키는 것이 화두인 시대가 됐다. 서 말의 구슬도 잘 꿰어 상품으로 만들어야 보배인 것이다. '불교가 한국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고'라는 자부심은 이제 좀 넣어두고, 그 보고에서 무엇을 꺼내 활용할지를 고민해 보자.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 일타강사
BTN 불교TV에 다 있다!
모든 번뇌를 날려버릴 족집게 법문

한국학 | 문광스님
신 행 | 광우스님
계 율 | 법장스님
불교사 | 자현스님

문광스님 한국학 에세이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소중한·나·무한행복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법장스님의 Together 투계戒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